

어서와, 칠곡으로

일상에서 칠곡을 누리는 방법



2025년 을사년(乙巳年) 칠곡! 칠곡평화전망대에도 힘찬 희망이 솟아납니다

낙동강과 칠곡군이 한눈에 조망되는 자고산 정상 칠곡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일출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아쉽기도 하지만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다가옴을 알기에 설레기도 합니다.

을사년의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와 함께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우리 모두 '럭키 칠곡'을 향해, 파이팅!!!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칠곡

Vol.20 2024 Winter
Chilgokgun Magazine

인문학이 노닐다
평화가 넘실대다

ECO 칠곡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칠곡군 홍보장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애국동산 입구 ECO 칠곡 조형물

Chilgok now connects hope and happiness

끝과 시작, 그 어딘가의 겨울,

칠곡은 지금

희망과 행복을 잇습니다.

겨울은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
애매한 계절입니다.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을 동시에 품고 있으니까요.

2024년의 칠곡은 우리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을까요.
2025년의 칠곡은 또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까요.

희망을 실현시켜 행복으로!
지금 칠곡은 희망과 행복을 잇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지난해의 칠곡도
다가올 올해의 칠곡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행복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끝과 시작을 준비하는 겨울,
칠곡은 희망과 행복을 잇고 있습니다.

CONTENTS

2024 Winter Vol.20

Chilgokgun Magazine

칠곡

인문학이 노닐다
평화가 넘실대다



Cover Story

ECO 칠곡

애국동산 입구에 새로운 조형물이 등장했다. 'ECO 칠곡'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도시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칠곡군이 올해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다. 해가 질 무렵이면 'ECO 칠곡' 사인 옆 둥그란 조형물이 석양에 반사돼 보석처럼 빛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발행일 2024년 12월 20일

발행처 칠곡군

편집인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발행처 우)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전화 054) 979-6013 팩스 054) 979-6059

홈페이지 www.chilgok.go.kr

기획·편집·제작 동아문화사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칠곡군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실린 내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행복 채우고

06

칠곡투어

축! 대경선 개통
도보로 하는 칠곡 투어 어때요?

10

인문을 7해

나를 되돌아보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곳,
- 동명면 억새마을 -

14

같이, 가치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건강담은 칠곡할매'를 소개합니다

16

럭키칠곡

고마워요, 24시 돌봄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칠곡군!

06



● 화합 살리고

18

Now 칠곡

2025년을 준비하며
2024년 칠곡을 되짚다

22

칠곡애향만

2024 칠곡군 7대 뉴스

24

Let's 칠곡

인문 경험의 공유지,
문화도시 칠곡의 문화이야기

28

칠곡 인기척

꿈을 향한 칠곡군 학생들의 여정에
튼튼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24



● 기쁨 늘리고

30

칠곡군의회

칠곡군의회 News

32

칠곡이야기

장난감 기부로 동남아에 전한 희망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34

칠곡氣UP

두부로 하나 되는 마을
돌모리마을 영농조합법인

35

독자마당

독자후기
독자참여



제시된 QR코드를 통해 칠곡 소식을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32



오랜 기다림 끝, 마침내 개통한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로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경선 덕분에
 대구를 포함한 칠곡, 구미, 경산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이 됐다.
 대경선 개통을 맞아 도보로 가능한 철곡 투어를 소개한다.

축! 대경선 개통

도보로 하는
 철곡 투어 어때요?



“이번역은 왜관, 왜관역입니다.”

하루 편도 61회 운행(평소 20분, 출퇴근 시간 15분 배차)되는 푸른 외관의 2량짜리 열차가 역사로 들어온다. 대경선 개통으로 경산에서 출발해 동대구, 대구, 서대구를 거쳐 왜관역에 도착한 열차다.

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왜관역은 굴곡 많은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왜관읍에 위치해 있다. 경부선의 중간역으로서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처음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한 왜관역은 119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역민의 발을 자처하고 있다. 또 1962년 주한미군기지창 전용선이 생긴 이래 관련 군수물자 수송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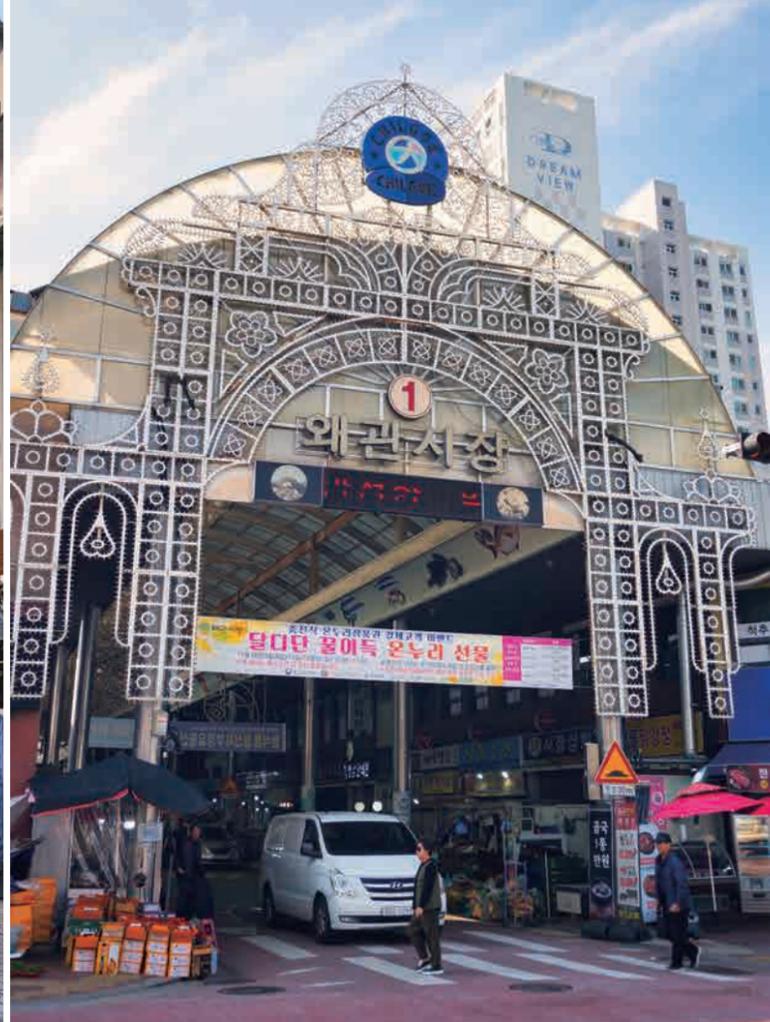
칠곡의 명소 상당수가 왜관역 인근에 접해 있어 대중교통과 도보만을 통해 칠곡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왜관역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출발지이다.

📍 왜관읍 중앙로8길 10





철곡투어



감돼 당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고 평가받는다. 도로 개설 때문에 터널 끝부분을 메워 통로 기능을 못할 때가 잠시 있었으나 터널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2016년 왜관소공원으로 이어진 새 출입구를 가지면서 총 길이 108m인 현재 터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 왜관을 석전리 882-61

새롭게 단장한 애국동산

왜관소공원쪽 출입구를 통해 왜관터널을 빠져나와 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내 애국동산을 마주하게 된다. 최근 이뤄진 인근 도로 정비와 경관 개선으로 애국동산을 오르는 입구가 한층 더 깔끔하고 안전해졌다. 애국동산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장진홍, 애국지사 강원형 등 독립유공자 19인의 비와 6·25전쟁 당시 국군과 UN연합군의 공을 기념하기 위한 왜관지구전승비 등 4기의 비, 현충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일몰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낙동강으로 떨어지는 해의 빛에 반사된 기념 및 추모비가 더 경건하게 보인다. 애국동산에 세워

진 비를 자세히 살피며 걷다 보면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절로 느껴진다. 정상에서 뒤돌아서면 탄성을 자아내는 절경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근대사의 굴곡진 현장인 낙동강과 호국의 다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대경선 개통이 일으킨 변화

총 연장 61.85km의 대경선 개통은 구미, 사곡, 북삼,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대구·경북 8개 역을 40분 만에 주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기존 무궁화호보다 10분가량 빠른 것이다.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한 북삼역은 2025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이에 맞춰 대구·경북 8개 시·군을 연계한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도 곧 확대될 방침이다. 시행되면 칠곡군을 포함해 대구와 경산, 구미, 김천, 영천, 청도, 고령, 성주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대구권 광역철도를 최대 2번까지 무료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이 수도권처럼 1시간 안팎 생활권으로 묶일 날도 머지않은 셈이다.



철곡의 중심 전통시장, 왜관시장

왜관역에서 큰 도로를 따라 조금만 걷다 보면 바로 왜관시장이자. 왜관시장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매원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 때문에 1976년부터 상설시장으로 변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원장의 장날이었던 1, 6일이 되면 평소보다 더 북적댄다. 2000년대 전통시장의 현대화 흐름에 발맞춰 아케이드와 야간 조명이 설치되면서 현재와 같은 단정하고 말끔한 왜관시장의 모습을 갖췄다. 왜관시장에 가면 전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수산물, 잡화, 반찬, 떡 등은 물론 철곡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이국적인 동남아 식당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또 과거 인근에 있었던 우시장 때문에 쇠고기도 유명한데, 전통시장마다 강세를 보이는 순대국밥과 함께 왜관시장의 대표 먹거리가 쇠고기구이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인근에

준비해져 버린 마트와 편의점에 밀려 그 위세가 비록 예전만 못할지라도 여전히 철곡군의 중심상권인 왜관시장이다.

📍 왜관읍 시장1길 7

걸어서 만나는 문화유산, 구(舊) 왜관터널

왜관시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구 왜관터널은 일제강점기였던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생긴 터널이다. 1941년 경부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철로 폐선 전까지 사용됐던 이 터널은 근대 철도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폭 4.84m, 높이 3.15m, 길이 약 80m 구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구 왜관터널은 석조와 붉은 벽돌로 된 말굽형 터널이다. 내부 하단은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화강석 견치석 쌓기를, 상부는 붉은 벽돌로 정교하게 쌓았으며, 입구 아치는 화강석으로 마





나를 되돌아보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곳,



동명면 역사마을

동명면은 칠곡군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는 칠곡도호부가 자리했던 가산산성과 천년고찰인 송림사가 자리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야간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인근 주민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동명저수지도 있지요. 무엇보다 종교를 떠나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동명면은 품고 있습니다.

‘한티가는 길’의 종착지

한국의 ‘산티아고 길’이라 불리는 ‘한티가는 길’은 칠곡군 왜관읍 가실성당에서 신나무골성지를 거쳐 팔공산 한티순교성지까지 45.6km의 아름다운 숲길과 산길을 걷는 5개의 도보 순례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개의 구간은 각각 돌아보는 길, 비우는 길, 뉘우치는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로 불리는데, 마지막 사랑의 길 구간 그 끝자락에 한티 역사마을은 자리하고 있지요.

동명면 팔공산 기슭으로 들어서면 보이는 동명저수지를 거쳐 드라이브하기 좋은 한티 셰프의 산책길을 따라 가산산성 야영장을 지나쳐 굽이굽이 굴곡진 고개를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한티 역사마을입니다. 한티 역사마을을 향해 가는 길 자체가 아름다워서일까요?

가는 내내 잠시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는 이, 늦가을을 만끽하려는 듯 오토바이로 길을 오르는 라이더들, 한티 셰프의 산책길에 자리한 식당에서 고즈넉한 휴식을 즐기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티 역사마을은 칠곡군에서 군위군으로 넘어가는 한티재 아래에 위치한 보물 같은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모여 살던 역사초가 마을을 복원한 곳입니다. 마을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우리가 아는 그 마을은 아닌 셈이지요.



현존 국내 유일 억새초가 군락지

칠곡군에 따르면 팔공산 중턱 해발 600m 구릉지 약 3만5천 m²에 위치한 한티 억새마을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억새초가 군락지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억새초가는 약 200년 전부터 여기서 생활해 오던 선조들의 전통적인 주택양식이었죠.

깊은 산속 분지처럼 자리했기 때문일까요. 마을의 가옥 형태는 모두 억새초가입니다. 산 능선 등 고지대에서 자라는 억새는 흙과 함께 이곳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지붕재료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볏짚을 엮어 지붕으로 만든 초가와 달리 억새로 지붕을 덮으면 매년 이엉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볏짚에 비해 억새는 수분 흡수율이 낮아 1년 단위로 교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천연 향균 물질이 들어 있어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억새 이엉으로 지붕에 두텁게 층을 쌓으면 보온 및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지요. 깊은 산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는 이만한 집이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티 억새마을은 당시 산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 짚이나 억새, 산죽 등으로 엮어 만든 지붕재료, 또는 그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슬픔을 간직한 억새초가

이 깊은 산 중턱,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산 정약용이 처음 학문으로 받아들였던 천주교는 조선시대인 1800년대 초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며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유교 사회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는 탐탁지 않은 종교였죠. 그리하여 온갖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한티 억새마을은 박해를 피해 한두 명씩 숨어든 신자들과 박해로 대구 감형에 갇힌 신자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모인 가족들로 이뤄진 마을입니다. 1860년 경신박해 이후 마을은 커져



갔지만 병인박해(1866년)가 이어지던 1868년 늦봄, 불행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포졸들이 와서 신자들을 처형하고 그들이 되돌아와서 살지 못하도록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을 위치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본래는 한티 순교 성지 순교자 묘역의 대형 십자가 뒤편이었죠. 현재 한티 억새마을은 그때 살아남아 흩어졌던 신자들이 다시 새로운 터에 만들었던 마을을 복원한 겁니다. 잊혀 버린 줄 알았던 이 마을은 1980년대 초 대구대학교가 한국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성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억새는 모든 걸 다 보았을까

마을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전형적인 60~70년대 산골 마을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뛰어놀며 웃음 짓는 아이들과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아낙을 만날 것만 같습니다. 참담함 속에서도 오로지 신앙이라는 정신 유산으로 위로와 평화를 받으며 버텼을 이름 모를 누군가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비어있는 줄만 알았던 억새초가 지붕 위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물어보니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져 버리고 마는 초가의 특성상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조를 짜 억새초가 아궁이에 매일 잊지 않고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12채 가운데 7채는 피정의 집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리는 필수입니다.

한티순교성지, 한티마을사람, 숯가마터 등을 포함해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스럽고 자랑스런 공간으로 알려진 이곳이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을 명소로 더 유명합니다. 한티 억새마을을 에워싼 너른 억새 군락지 때문이죠.

가을의 정점에 방문해서였을까요. 바람결에 '사르르' 고개 속인 억새들이 만들어낸 장관에 이내 감탄하고 맙니다. 은빛 억새 물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처형당했던 안타까운 생명들, 이곳에 터를 잡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 다부동 전투가 치열했던 6·25전쟁 당시 겪었던 민족상잔의 아픔까지... 억새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보았겠지요. 2m를 훌쩍 넘긴 키다리 억새들이 만든 아름다움이 황홀하면서도 처연합니다. 또 다른 바람결에 고개 속였던 억새들이 '사르르'하고 다시 허리를 펴니다.

고요하게 걸으며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안성맞춤인 곳, 이곳은 한티 억새마을입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건강담은 칠곡할매’를 소개합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새롭게 탄생했다. 지난 2007년 개발돼 사용됐던 기존 공동브랜드 이후 17년 만이다. 머지않아 칠곡군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보게 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건강담은 칠곡할매’를 공개한다.

칠곡할매



Chilgok Grandma

칠곡군 농산물을 알려라

칠곡군은 지난 2007년 ‘아침해 칠곡’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단체에 대해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을 지정·허가해 왔다. 하지만 브랜드 네이밍이 칠곡군을 대표하지 못해 지역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 특히 최근 지자체별 농산물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새로운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 2023년 9월 칠곡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용역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건강담은 칠곡할매’이다.



칠곡의 자산, ‘칠곡할매’ 시장 트렌드에 딱!

공동브랜드 개발에 앞서 ‘칠곡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 조사가 이뤄졌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칠곡할매’를 떠올렸다. ‘칠곡할매’는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전시회, 랩 공연 등을 통해 수많은 언론매체 및 SNS에 노출되며, 대중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 칠곡군은 이런 ‘칠곡할매’의 활동들이 칠곡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칠곡군은 ‘칠곡할매’란 이미지를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연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칠곡할매’가 주는 친근함, 푸근함, 따뜻함, 자연스러움, 꾸밈없음, 진솔함, 신뢰 등을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에 접목시키기로 한 것이다.

특히 최근 신선식품 구매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젊은 세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칠곡할매’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칠곡군만의 강점이 됐다.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모두 UP

마침내 칠곡군은 ‘칠곡할매’ 이미지와 기존에 개발된 ‘칠곡할매’ 서체를 적용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건강담은 칠곡할매’를 칠곡군민들에게 선보였다.



앞으로 ‘건강담은 칠곡할매’는 칠곡의 대표 작물 참외, 양봉, 쌀 등은 물론 다양한 농·특산물의 브랜드 상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브랜드 로고, 패키지, 포장재 등도 함께 개발됐다.

칠곡의 자연 그대로에서 키운 농산물이란 이미지에 선하고 올곧은 ‘칠곡할매’들의 맘과 정성이 더해진 ‘건강담은 칠곡할매’에 대해 칠곡군민들은 “새롭고 신선하다”며 호응했다. 칠곡군은 “독창적 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소비자에게 정성으로 생산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라며, “지역적 차별성을 부각시켜 칠곡군 농산물과 함께 칠곡군을 홍보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담은 칠곡할매’는 칠곡군이 최근 발표한 2024년 7대 뉴스에 포함될 정도로 칠곡군민의 관심이 뜨겁다. 이 같은 군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관심이 지속된다면 ‘건강담은 칠곡할매’는 머지않아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라!



“나랑 같이 춤출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초등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북적이기 시작한다. 학원 가기 전까지 시간이 붕 뜨는 아이, 부모가 퇴근 전이어서 집에 가면 혼자가 되는 아이, 학교에서 또래친구들과 마음껏 놀지 못한 아쉬움을 채우러 오는 아이 등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는 이유도 다양하다.
 현재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2023년 9월 개소한 북삼마을돌봄터와 석적마을돌봄터 2개소가 운영 중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공적 돌봄을 확대해 초등학교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 외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전한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부재를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주를 이룬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초등학교(6~12세) 아동이라면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마워요, 24시 돌봄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칠곡군!



어린 자녀 양육 시 가장 곤란했던 때를 꼽는다면 '긴급히'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닐까.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칠곡군이 나섰다. 지난 6월부터 본격 24시 운영에 돌입한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서다.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유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상시돌봄'과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인 '일시돌봄'으로 구분된다. 칠곡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칠곡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모두 평일 24시 운영으로 전환했다. 칠곡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방학기간에도 동일하게 문을 열었다. 아동들은 이곳에서 놀이체육시간, 요리, 영어학습, 방송댄스,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덕분에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전까지 홀로 있을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석적마을돌봄센터의 한 돌봄교사는 “학부모들이 학교 과제 등을 함께하며 성적이 오르는 자녀들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며, “늦은 저녁 긴급상황에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용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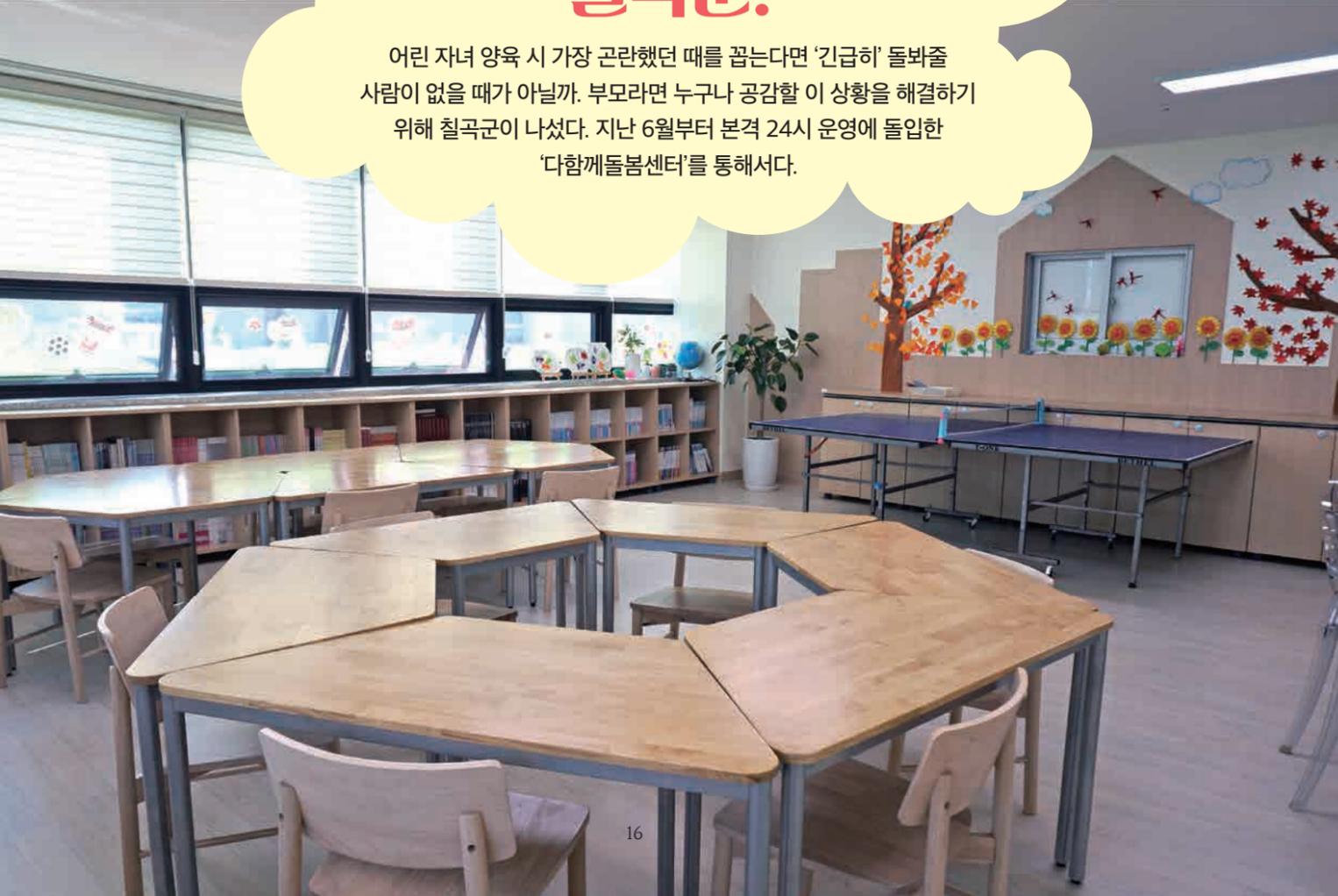
- 북삼다함께돌봄센터**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63
 북삼국민체육센터 1층
 문의 054-979-3500
- 석적다함께돌봄센터**
 위치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울로7길 5
 석적국민체육센터 1층
 문의 054-979-7900



'늘봄 인(in) 작은도서관' 도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외에 기존 작은도서관 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도 있다. 왜관읍의 태왕아너스센터 새마을작은도서관, 2주공 새마을작은도서관에는 돌봄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을 위한 미술, 난타, 공예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미리 문의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칠곡군이 칠곡공공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덕분이다. 괜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육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다.



2025년을 준비하며 2024년 칠곡을 되짚는다

2024년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은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올해도 칠곡군은 부지런히 군민을 위해 움직였다. 값진 열매를 맺은 수많은 결실들 가운데 최근 눈에 띄는 성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맞손 고용창출 기대 UP

칠곡군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 대표 홍용준)와 서브허브 투자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월 1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LS는 칠곡군 왜관을 낙산리 일대에 대지면적은 2만8,291㎡(8,558평), 건축면적 9,100.93㎡(2,753평) 규모의 서브허브를 운영하게 된다. 총 투자금은 260억원으로 약 400여 명의 직접 고용도 이뤄질 계획이다.

서브허브란 풀필먼트센터(FC)에서 출고된 물품을 1차 분류해 배송 전진 기지로 운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칠곡 서브허브는 당분간 배송캠프에 상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5년 1월부터는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을 입고해 보관하는 물류센터이자 고객 주문과 동시에 최종 배송이 가능한 복합물류시설로 운영될 전망이다.

칠곡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4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주변 소상공인 제품 매입과 오픈마켓 입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배송 산업을 선도하는 CLS 유치를 통해 칠곡군은 지방투자를 위한 최적의 입지 홍보는 물론, 투자유치 마중물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1, 2 칠곡군-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칠곡에 복합레저 관광단지 확정

오는 2028년까지 칠곡에 1,255억원(골프장 투자분 포함)을 투자해 대규모 복합레저형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주)동화레저가 기산면 99만8,000㎡(약 30만 평)에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동화레저는 아파트 브랜드 동화 아이위시(I-WISH)로 유명한 (주)동화주택의 관계사로 현재 칠곡에 아이위시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 27일 칠곡군은 경북도, 동화레저와 복합레저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에는 칠곡군이 경북도와 함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동화레저는 1,255억원의 투자계획과 함께 지역 고용 창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산면 노석리 일대에는 △콘도·풀빌라·컨벤션센터 등 고급 숙박시설 △알파인코스터·치유의 숲·숲속 야영장 등 휴양시설 △골프장(9홀)·어드벤처파크 등 운동 오락시설 등을 갖춘 복합레저형 휴양 관광단지가 2028년까지 들어서게 된다. 칠곡군은 이번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칠곡이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구미·김천·성주·고령 및 대구권의 관광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경북 서남부권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급부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칠곡 할매 시(詩), 교과서 수록

'80이 너머도 / 어무이가 조타 / 나이가 드려도 어무이가 보 고시따 / 어무이 카고 부르마 / 아이고 오이야 오이야 / 이래 방가따.'

여든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깨친 뒤 시집 4권을 내 화제가 됐던 경북 칠곡 할머니들이 이제 국어 교과서에 이름을 올린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 중 하나인 출판사 천재 교과서의 2025년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칠곡 할매'들이 쓴 시와 그림 4편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70여 년 동안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할머니들은 한글을 배우며 어느덧 삶까지 시로 표현했다'는 소개 글과 함께 '성장'의 의미를 다룬 단원에 강금연 할머니의 '처음 손잡던 날', 김두선 할머니의 '도래꽃 마당', 박월선 할머니의 '이뿌고 귀하다', 이원순 할머니의 '어무이가 실린다'.

천재교과서 측은 "교과서에 만학도 할머니들의 시를 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보통 성장하면 어린 학생을 떠올리는데 글을 배우며 성장한 할머니들의 사례가 학생들이 배울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 담았다"고 전했다.

- 3 동화레저 신규관광단지조성 관련 업무협약
- 4 김재욱 칠곡군수와 천재교과서에 자신의 시가 실린 이원순 할머니가 교과서 수록을 기념하는 뜻을 들고 있다.
- 5 왜관역에 들어오는 대경선 전기전동열차
- 6 전기전동열차에 시승한 김재욱 칠곡군수



지난 11월 22일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교과서 등단'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김재욱 군수는 "칠곡 어르신들의 열정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 할머니가 공부한 약속 면에 칠곡 할매들의 시와 그림을 벽화로 그린 '교과서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칠곡 할매들의 시와 랩 등을 전시하는 칠곡할매문화관도 곧 선보일 방침이다.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대경선이 마침내 개통해 지난 12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칠곡군민을 포함한 경북과 대구 350만 시도민들이 수도권처럼 광역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를 맡은 대경선은 전기전동열차(2량 1편성)가 투입되며 구미~칠곡~대구~경산 전 구간을 1시간 내로 하루 최대 왕복 100회 정도(평일 기준) 운행된다. 기본요금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인 1,500원(교통카드 기준)이다. 여기에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과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와 환승체계(50% 운임할인)도 이뤄진다. 정차하는 7개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이번 대경선 개통으로 칠곡군민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고 빠르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본격적인 광역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시·도 간 상생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제

- 기본운임: 1,500원 (10km까지)
- 추가운임: 100원 (10km 초과 시 5km마다)
- 시계외 운임: 200원 (10km 이내 이용 시 면제)

구 간	경북 북부지역 (구미, 사곡, 북삼, 왜관)	대구지역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북 남부지역 (경산)
기본 운임	10km까지 1,500원(1회권 1,700원)		
추가 운임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추가		
시계외 운임	경북북부·대구·경북남부 중 두 지역 이상 연속 이용 시 200원 추가		

운행계획

- 배차간격: 평일 19~25분, 휴일 25분 정도
- 첫차/막차

구 분	첫 차			
	시발역	출발시간	종착역	도착시간
구미방면	동대구	05:25	구미	06:12
경산방면	구미	05:30	경산	06:29
구 분	막 차			
	시발역	출발시간	종착역	도착시간
구미방면	경산	23:38	구미	00:37
경산방면	구미	23:50	동대구	00:37

2024 칠곡군 7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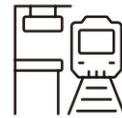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럭키(Lucky) 칠(7)곡만의 7대 뉴스. 칠곡군민들이 생각한 2024년 화제가 된 칠곡군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 군민의 참여로 선정된 '2024 칠곡군 7대 뉴스'를 공개한다.

1 위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대구와 구미를 잇는 대구-경북 광역시대 개막



17.2%

2 위



칠곡군 공영주차장 건립

왜관읍 석전리의 오랜 숙원, 주차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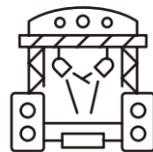
10.7%

3 위



제11회 칠곡낙동강 평화축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시도로 더욱 풍성해진 행사



9.7%

4 위



ECO칠곡 프로젝트

모두 다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도시 추진



9.2%

5 위



칠곡 꿀맥 페스타

첫 회에 무려 1만 명이 왔다! 꿀맥주 & 소시지의 꿀조합!



9.0%

6 위



'건강담은 칠곡할매' 개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새 얼굴



7.2%

7 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



5.8%

칠곡군은 올해 7대 뉴스를 통해 확인된 군민들의 행정 수요와 관심을 2025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들과 보다 더 소통하고 보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 이 글은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조사「2024년 칠곡군 7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참여인원 1,483명)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인문 경험의 공유지, 문화도시 칠곡의

문화이야기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는 필수 요소 문화.
칠곡군은 평생학습도시라는 기틀 아래 함께 어울려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인문학도시를 거쳐,
축적된 인문 경험을 삶의 터전에서 일상적 문화로
만드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칠곡을 오가는 모든 이를 위한 공간

문화도시 여행자센터 Chilgoker(칠곡커)

- 📍 왜관읍 중앙로 188
- 🕒 화~토요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공휴일, 일·월요일 휴관)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칠곡커는 왜관역 인
근에 자리하고 있다. 칠곡커는 칠곡군민뿐만 아니라 칠곡을
오가는 방문객들과 칠곡이 쌓아온 다양한 인문 경험을 공
유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칠곡커는 현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여행자 정보 센터, 위
케이션, 교육 공간 등으로 칠곡의 문화거점공간 역할을 톡톡
히 해내고 있다. 길을 걷다 지쳤다면 누군든지 문을 열고 들
어가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칠곡군민들의 문화적 삶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책자와 소식, 그리고 전시들이 상시 준
비되어 있어, 칠곡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칠곡커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 지난 7월에는 문화도시 플리마켓을 4차레
개최한 데 이어, 솟대, 유리반지, 매듭팔찌, LED레터링 풍선
만들기, 석고방향제 등 공예 만들기 클래스도 가졌다. '칠곡
예술인 아주심기'를 통해 선정된 작가 10인의 작품들의 전
시회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곳에서 열렸다. 군민과 함
께 칠곡의 매력을 알리며 문화도시 칠곡의 인문자산과 가치
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는 든든한 칠곡커다.

CHILGOKER



Nakpa

즐거움을 퍼뜨리다

낙파(樂播)

- 📍 왜관읍 석전로 9
- 🕒 화~금요일 13:00~21:00/
토요일 09:00~18:00(공휴일, 일·월요일 휴관)



20년 넘게 비어 있던 낙동강 파출소, 지난 2022년 이 오래
된 유휴공간은 지역민을 위한 문화도시 거점센터 '낙파'로
변신했다. 낙동강 파출소의 줄임말인 동시에 '즐거움을 퍼뜨
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부에는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가 비치
되어 있고, 벽면에는 칠곡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사업에 대
한 포스터들이 게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옛 낙동강 파출소
에 들어서면 만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출소 마지막 소장, 이
진희 소장이 입었던 근무복도 만나볼 수 있다. 낙동강 파출
소를 기억한 이들에게 추억을, 현재의 낙파를 방문하는 이들
에게는 신선함을 주는 공간이다. 칠곡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는 인문점빵도 한켠에 마련되어 있다. 인문점빵은
칠곡의 인문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가치를 소비할 수 있
는 문화상점으로 칠곡의 자산을 개성 있는 모습의 제품으로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연중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기도 한다. 낙파 앞
광장에서는 각종 문화 공연이 펼쳐지거나 자선 바자회 등의
뜻깊은 행사도 열린다. 현재 낙파는 공간을 재정비 중인데,
정비가 완료되는대로 1월 중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ieum:teo

27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통

우리동네 이음:터



‘우리동네 이음:터’는 철곡문화관광재단이 철곡 전역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 이웃과 어울리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진행했던 사업이다. 철곡군민들이 서로의 취향을 나누고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군민 주도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 및 조성해 주는 것이다.

덕분에 일반인이 소유한 공간, 또는 그동안 활용이 미미했던 철곡 내 여러 공적공간들이 ‘우리동네 이음:터’를 통해 새롭게 주민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왜관읍 6개소, 북삼읍 6개소, 석적읍 13개소, 약목면 1개소, 지천면 1개소 등 총 27개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다. 공방, 도서관, 책방, 복합문화공간,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해 특색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동네 이음:터’라는 사업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상 가까이 있는 동네 골목 속 공간들이 사람들 간 활동, 관계, 마음이 이어지는 소통의 공간이 된 것이다. 공간이 있으니, 사람이 모여드는 건 당연지사. 특색 있는 27개의 커뮤니티 공간과 그곳의 ‘이음지기’를 통해 군민들은 평소 눈으로만 보고 스쳐 지나쳤던 곳을 재발견하기도 했고, 참여를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기도 했다. 공간(터)이 있어야 이음이 생겨나고 이음이 있어야 공간(터)도 활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뜻깊은 활동이었다.



[우리동네 이음:터]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예술, 교육, 취미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통하여 우리동네의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직장과 집 사이의 활터입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쌓은 추억

버스킹 파이터

일상 속에서 ‘삶’처럼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철곡의 버스킹 파이터는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들로 문화예술을 자주 접하기 어려운 철곡군민들에게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덕분에 올해 군민들은 도심 속 곳곳에 자리한 주요 휴식처에서 열리는 야외 문화공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었고, 지역 예술인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 나눔을 통해 활동하며 창작 의지를 견고히 다져나갈 수 있었다.



BuskingFighter

한 여름의 낭만이 시작됐던 7월부터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던 10월까지 4개월 동안 철곡문화관광재단 오디션에 합격한 30팀은 평화음악분수공원과 철곡보생태공원 등에서 90여 차례 공연을 가지며 아름다운 추억을 군민들에게 선사했다. 노래, 음악, 춤,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를 통해 군민과 지역 예술인이 조화롭게 어울린 순간이었다. 산책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다 우연히 접한 공연들은 군민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며 힐링이 됐다. 철곡의 자연 풍경과 공연이 어우러진 버스킹 파이터는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에 활력소가 돼 주었다.





꿈을 향한 칠곡군 학생들의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교육지원팀
임보람 주무관

공직생활 15년 차에 접어들지만 아직도 첫 출근이 생생하다는 임보람 주무관. 부서를 옮기며 새 업무를 접할 때마다 항상 겸손한 배움의 자세로 대했기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칠곡군이 선정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꿈을 향해 걸어가는 지역 아이들의 여정 제일 가까이에서 업무할 수 있어 기쁘다는 그다.



Q 축하드려요. 칠곡군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소감이 궁금합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반응도 궁금하고요.

A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는 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동료와 부서의 협업,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주었고, 특히 제 아이가 더 자랑스러워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큰 격려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이 큼니다.

Q 칠곡군 공무원으로서 첫 출근 기억나세요? 첫 발령은 언제였으며, 어느 부서들을 거쳐 지금의 소속이 되신 걸까요?

A 공직생활 15년 차에 접어든 지금도 첫 출근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총무과로 발령을 받고 첫 사회생활에서 오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 약목면사무소, 세무과, 왜관읍사무소, 의회사무국을 거쳐 지금의 교육아동복지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행정 업무를 대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업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Q 교육아동복지과 교육지원팀의 주요 업무는 ▲장학재단 관리 ▲학교 교육지원 사업 ▲유·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교육청 업무 협의 ▲교복구입비 지원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등입니다. 이 중 맡은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일까요?

A 교육지원팀은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호이장학회 관리, 미래교육지구 조성, 교육발전특구 추진, 대학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교육지원청 업무 협의 등 전반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미래교육지구 조성,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담당합니다.

Q 교육 기반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앞장선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 및 강화한 사업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 맞춤형 학교 운영 사업을 발굴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독서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및 장난감도서관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운영, 늘봄인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능 온라인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



도록 교사와 학생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강의 지원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지정에 공모해 2월 선정됐습니다.

Q 앞서 언급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30억)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이 있을까요?

A 공모 기간이 너무 짧아 용역 없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같은 부서 서병선 과장님과 박연주 팀장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 수요 및 정책에 대해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저는 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및 교육 지원 사업을 파악하고 그와 연계한 기존 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특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몇 달간 하나의 업무를 목표로 부서 모두가 협력했던 기억이 좋게 남아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등에 있어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짧은 시간 서로 함께 노력하며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Q 교육지원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세운 목표나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칠곡군은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교육지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습니다.

COUNCIL NEWS

의/회/소/식



철곡군의회, 4대 폭력 예방·청렴 교육 실시

철곡군의회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철곡군의회(의장 이상승)가 지난 10월 16일 철곡 호국평화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철곡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 후 참석자 전원은 공식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구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긴 철곡군의회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상승 의장은 “철곡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

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 가져

철곡군 도시재생사업 방향성 제시



경북 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지난 10월 28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왜관읍 도시재생사업과 약목면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대해 분석해 추후 시행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이뤄졌다. 연구 결과는 입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등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향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철곡군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했다. 한편 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김태희 의원을 대표로 심정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희,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철곡군의회, '자원봉사 릴레이 바통 터치 운동' 동참

가을철 농촌일손 돕기 활동



철곡군의회가 지난 11월 8일 '자원봉사 릴레이 바통 터치 운동'의 일환으로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명면 봉암리 농가를 방문하여 콩 수확 및 타작 작업을 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이상승 의장은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게 됐다”며, “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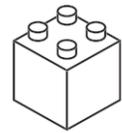
철곡군의회, 개원 33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발자취 되새기며 새로운 도약 다짐

철곡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철곡군의회 본회의장과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에서 개원 3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초대 철곡군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개원한 뒤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3년간의 성과와 변화를 되돌아보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의정 33년사 기념영상물을 보며 군민과 함께한 33년 역사의 시간을 공유했다. 또 철곡군의회 발전에 기여한 전직 의원에게 공로패 전달과 전·현직 의원 소통간담회도 진행됐다. 이상승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철곡군의회가 오늘날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여러분이 남기신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철곡군의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난감 기부로 동남아에 전한 희망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나에겐 쓰임을 다한 물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장난감이 특히 그렇다. 성별과 연령에 맞춰 구매했다라도 자녀의 성장과 흥미도에 따라 금세 그 쓰임을 다하고 만다. 그렇기에, 장난감 기부는 수여자와 기부자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다.

멀쩡한 장난감, 그 쓰임을 고민하다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아이누리 도서관, 관장 김명신)이 앞장서 진행한 장난감 기부가 군민들 사이에서 화제다. 각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 모아 전달해 준 장난감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라오스, 베트남 등 필요한 곳에 기부됐다.

김명신 관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며 조금 파손됐거나 소리가 안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되는 장난감들이 좋게 쓰여질 곳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나, 새마을세계화재단 축을 통해 극빈국 아이들의 생활상을 전해들었다”며 처음 장난감 기부를 생각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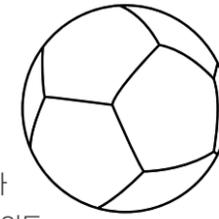
기부가 결정되자 나머지 일은 일사천리였다. 김 관장은 “재단과 협약을 맺고 칠곡군에서 후원하고 있는 라오스 비엔티 안특별시 백음구 농사이 마을과 재단이 추천해 준 팍쿠앙 마을 두 곳에 장난감을 전달하게 됐다”고 했다.

모두의 관심이 더해지다

처음에는 아이누리 도서관에서 폐기 예정이었던 장난감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 라오스로 보냈다. 장난감을 받은 라오스의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사진과 영상을 받아본 김 관장은 아이누리 도서관 회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갔다. 청소년과 젊은 부부 등 군민들은 추억이 깃든 ‘뽀로로’와 ‘타요’, 최근 인기몰이 중인 ‘티니핑’ 등 아동 프로그램 관련 장난감을 주저 없이 기부했다. 고교 교사와 학생들도 장난감 기부 및 세척에 힘을 보탰다. 지난 9월에는 북삼고등학교 이세진 교사와 6명의 학생들이 아이누리 도서관을 직접 찾아와 모은 장난감을 전달하고 세척에 동참했다.

“장난감과 인형, 아동 의류를 기부받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칠곡군을 넘어 경북도 내, 심지어 대구, 부산, 서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장난감들을 가지고 와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아이누리 도서관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라오스 농사이 마을과 팍쿠앙 마을, 베트남 다낭시 한 고아원에 1,000여 점의 장난감과 인형, 아동의류 등을 기부할 수 있었다.



칠곡군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

김 관장은 “나이지리아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다”며 “물품 배송 시 세금 등의 문제로 비용 절감을 고민하다 보니 준비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기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부를 위해 직접 라오스에 다녀와 보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느껴집니다. 요즘은 한 두 명 외에 자녀를 낳지 않으니 필요 없어진 물건에 대한 또 다른 쓰임을 다들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번 기부는 이런 마음을 모아 저희가 전달할 곳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가 시작되면서 아이누리 도서관의 할 일은 전보다 더 많아졌다. 몸은 고되지만 쏟아지는 기부 물품에 행복한 비명을 내지를 정도다. 북삼고등학교, 칠곡군자원봉사센터 등 봉사자들의 도움도 감사하다. 장난감 기부는 이처럼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일이다.

“장난감을 받고 좋아하던 라오스 어린이들이 떠오릅니다. 저만 기부의 기쁨을 직접 누린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전해주시는 기부품 모두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졌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두부로 하나 되는 마을 돌모리마을 영농조합법인

가산면 석우리 돌모리마을에서 만드는 두부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해 지역 행사나 축제 판매부스로 참여할 때마다 완판을 기록한다. 두부를 통해 발전해 가는 마을이 좋다는 주민들, 돌모리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찾았다.

돌모리마을의 중심이 된 옛 학교터

마을 근처에 돌이 많아 석적(石積)이라고 했다. 이를 처음에 사람들이 '돌모루'라고 부르다가 음이 변해 '돌모리', 석우(石隅)가 됐다고 한다. 돌모리마을 복합센터가 들어선 곳도 1991년 폐교된 옛 학교 터인데 학교 이름에 '선석'이 들어간다. 김태순 돌모리마을 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은 "센터 입구에 선석 국민학교 학생들 흑백사진을 구해 갤러리처럼 걸어놨어요. 졸업했던 마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라고 말했다. 돌모리마을 복합센터에서 '돌모리마을 손두부'는 만들어진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돌모리카페 메뉴도 두부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하다. 2023년 총회를 통해 제2대 대표로 선임된 이현우 돌모리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돌모리마을 자체가 유명하지 않는데도 매출이 나쁘지 않았던 것은 마을 어르신들이 만든 손두부의 맛이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



마을에 대한 애정만큼 더 단단해질 것

약 6~7년 전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두부여서 시작한 일이었다. 국산 100% 콩을 곱게 갈고 묵직한 가마솥을 사용해 두부를 만들어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까지 마치는 일이 녹록지 않아 보였다. 1판에 12모 기준, 6~7판 정도를 매일 만든다고 하니 힘들 법도 한데 일할 수 있어 흥이 난다는 어르신들이다. 올해 여름에는 행사 '약자지깎 돌모리 가족 힐링 페스타'도 기획해 성공리에 마쳤다. 단 이를 뿐이었지만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했다. 아직은 단체 위주로 예약 진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대상 '손두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다. 영농조합법인을 재정비하며 경북 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입점했다. 두부와 콩을 활용한 가공품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콩물을 활용한 빙수는 이미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고, 개발에 공들인 서리태 차도 출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 사무국장은 "어른들과 운영하는 만큼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희만의 브랜드를 내실 있게 키워가려고 한다"며, "마을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도 소속감, 더 나아가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칠곡 소식지

지난 가을호를 읽은 후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소중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더 나은 칠곡 소식지를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화(왜관읍)

생명사랑 교량지킴이는 우선 제가 2년 연속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살은 요즘 인구가 줄어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죠.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네요. 생명을 존중하고 계도하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 봉사가 보람됩니다.

민○우(석적읍)

'let's 칠곡 - 칠곡은 지금 축제 중' 코너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의 명칭은 축제의 취지, 지역성을 나타내기엔 아쉽다고 생각해 왔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김○영(석적읍)

'빈집탐험대가 출동합니다' 코너를 통해서 칠곡군에도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에 다른 지역 농촌 빈집 소개 영상은 자주 보았는데, 이런 영상들이 칠곡군의 귀농·귀촌에 좋은 정보가 될 듯 하네요.

초성으로 배우는 칠곡 도전! 초성 퀴즈

아래 초성을 맞춰주세요.

문제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질의 우수성을 위해 최근 개발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평소 칠곡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브랜드 명을 보자마자 바로 칠곡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응모 안내

참여기간 2025년 1월 17일까지(기한 내 응모만 인정)
참여방법 아래의 QR코드 스캔을 통한 모바일 참여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응모혜택 기한 내 응모자에 한해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또 퍼즐 응모와 더불어 정성스러운 후기를 보내주시는 독자분 중 한 분을 무작위 선정해 가족사진으로 고급 아크릴 액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호 퍼즐 정답 및 당첨자 정답_ 3번 김○화 3179, 민○우 4581, 김○영 3872, 안○정 4264, 류○민 0239